

연결과 소통, 평화의 길을 열어가는 해저터널 종합정보지

PEACE TUNNEL

magazine

통권 7호
JANUARY 2012 **1**

내 생각에는 | 박경부
한일 해저터널 시대가 오고 있다

인물탐방 | 노자와 다이조, 일한터널연구회장
“한일터널은 제 필생의 사업, 생애를 걸었습니다”

COVER STORY

한민족의 진운(進運),
남북철도-가스관으로 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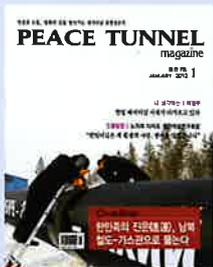
발행일 2012년 1월 1일

발행인 이용홍
편집장 권오문
기자 정성수
사진 이장환
디자인 장인선
인터넷 김주홍
독자관리 안현열

발행처 세계평화터널재단
150-036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6가 7번지

등록 2010년 9월 3일
등록번호 영등포 마 00016

전화 02)3471-7698
팩스 02)3471-7694



본지는 잡지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실천요강과 한국잡지협회의 잡지 판매공정경쟁 규약을 준수합니다.

*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판매량 확보를 위해 동북아 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남북러 가스관 사업'도 포함돼 있다. 사진은 러시아 기술자들이 극동지역에서 가스관 연결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사하공화국 외교부)

CONTENTS

커버스토리 | 한민족의 진운(進運), 남북철도-가스관으로 뚫는다

- 05 "번영과 평화의 '한민족 시대'를 열어갈 남북철도" | 이영탁
- 10 "한일터널은 남북통일과 시베리아 진출의 토대" | 신장철
- 14 "남북철도는 한일터널과 대륙철도의 교두보, 상생모델로 추진해야" | 최연혜
- 18 남북 철도와 베링해협 프로젝트는 국운 융성의 결정적 기회 | 정태익
- 22 "동북아의 정치·경제 지형도를 바꿀 가스관 프로젝트" | 한중만
- 26 "가스·철도·전력은 패키지...3국의 정치적 의지 필요" | 이영형
- 28 "가스관 프로젝트는 남·북·러 경제협력 모델" | 김정훈
- 30 "중국의 에너지 정책과 주변 정세 변화에도 관심 가져야" | 배규성
- 32 "동북아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가스관 프로젝트" | 이용권
- 34 세미나 스케치

인물탐방 | 노자와 다이조 일한터널연구회장

- 36 "한일터널은 제 필생의 사업, 생애를 걸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 44 한일해저터널 시대가 오고 있다 | 박경부

해외소식

- 46 지금 러시아에서는
에너지 자원-TSR 연계 등 북동러시아 개발의 신호탄 | 빅토르 라즈베긴

발행인의 편지

- 50 야쿠츠크에서 TKR(한반도종단철도)를 생각하다 | 이용홍

정기구독 안내

- 정기 구독료
 - 1년 정가구독료 18,000원
 - 정가 3,000원
- 구독 안내 전화 02)3471-7698
- 인터넷구독신청 fpu@beringproject.com

連結と疎通、平和の道を開く海底トンネルの総合情報誌

PEACE TUNNEL

Magazine

通巻7号

JANUARY 2012 1

私の考えは/パク・キョンブ
韓日海底トンネル時代が来ている

人物探訪/野澤太三 日韓トンネル研究会会長
韓日トンネルは生涯を掛けた私の一生の仕事

カバーストーリー

韓民族の進運
南北鉄道—ガス管で貫く

発行日 2012年1月1日

発行人 イ・ヨンム

編集長 グォン・ムン

記事 チョン・ソンス

写真 イ・ジンファン

デザイン チャン・インソン

インターネット キム・ジュン

読者管理 アン・ヒョンヨル

発行所 世界平和トンネル財団

150-036 ソウル市永登浦区永登浦洞
6街7番地

登録 2010年9月3日

登録番号 永登浦 마 00016

電話 02-3471-7698

FAX 02-3471-7694

- カバーストーリ** 韓民族の進運、南北鉄道—ガス管で貫く
- 05 繁栄と平和の韓民族時代を開く南北鉄道/イ・ヨンム
 - 10 韓日トンネルは南北統一とシベリア進出の土台/シン・ジンチョル
 - 14 南北鉄道は韓日トンネルと大陸鉄道の橋頭保、相生モデルで推進すべき/チェ・ヨンハ
 - 22 東北アジアの政治・経済地形図を変えるガス管プロジェクト/サン・チョンマン
 - 26 ガス・鉄道・戦略はパッケージ...3国の政治的意思が必要/イ・ヨンヒョン
 - 28 ガス管プロジェクトは南・北・ロシア経済協力のモデル/キム・チョンフン
 - 32 南北アジア安全にも大きく寄与するガス管プロジェクト/イ・ヨンゴン

- 人物探訪** 野澤太三 日韓トンネル研究会会長
- 36 韓日トンネルは生涯を掛けた私の一生の仕事

私の考え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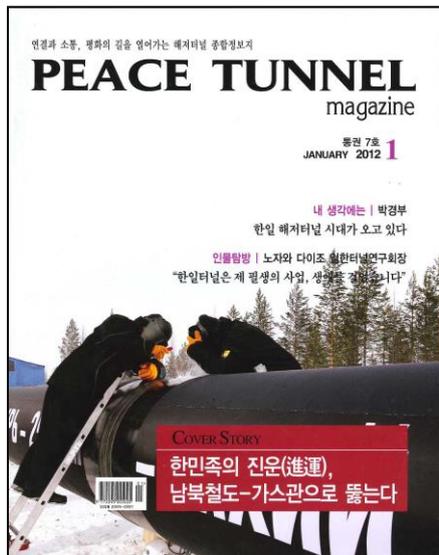
- 44 韓日海底トンネル時代が来ている/パク・キョンフ

海外通信

- 46 いまロシアでは
エネルギー資源—TSR 連携など北東ロシア開発の信号弾
/ピントル ラズベキ

発行人の手紙

- 50 ヤクツでTKR(韓半島縦断鉄道)を考える/イ・ヨンム



ロシアは極東地域に埋蔵される天然ガスの販売網確保のため東北アジア市場開拓に力を注いでいる。ここでは「南北ロシアガス管事業」を含まれている。写真はロシアの技術者が極東地域でガス管連結工事をしている。

定期購読案内

- 定期購読料
 - ・ 1年定期購読料 18000ウォン ・ 定価 3000ウォン
- 購読案内 02-3471-7698
- インターネット申請 fpu@beringproject.com